

IV. 2019년 주요 시책

도정 슬로건



도정 목표

내 삶이 바뀌는 **전남 행복시대**

도정 방침

활력있는 일자리경제	오감만족 문화관광	살고싶은 농산어촌	감동주는 맞춤복지	소통하는 혁신도정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주요 시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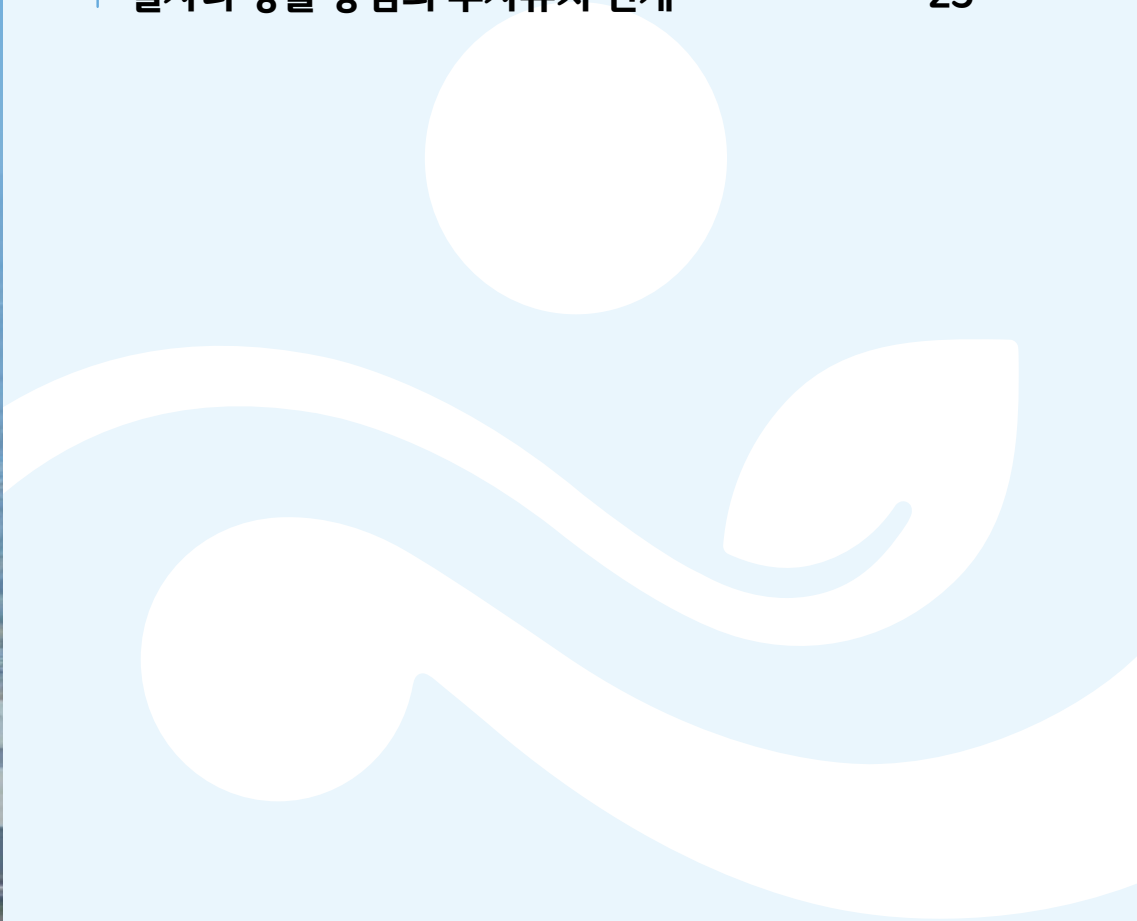
- 1 혁신성장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
- 2 전남 관광·문화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
- 3 농축어가 소득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
- 4 지역 핵심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
- 5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
- 6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- 7 상생과 소통으로 도민 제일주의 도정 실현

1

「혁신성장」 산업 육성과 「좋은 일자리」 만들기

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,
일자리 기반을 탄탄히 다져 지역산업 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
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- ❖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·육성 19
- ❖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1
- ❖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22
- ❖ 좋은 일자리를 늘려 인구회복 전환점 마련 23
- ❖ 일자리 창출 중심의 투자유치 전개 25



1 차세대 「신성장 동력산업」 발굴·육성

■ 「생물·의약」 기반의 「융복합 바이오산업벨트」 구축

- 비교우위의 바이오·의약 인프라를 활용해 '국가 백신 허브' 구축
 -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('17~'21),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('19~'22), 천연물 의약품원료 GMP 연계 시스템 및 대량생산시설 구축('18~'21), E형간염 백신 개발('18~'22), 쯔쯔가무시병 백신 개발('18~'24), 기능성 특산자원 개발 등
- 연구·생산·치료·휴양을 연결하는 '첨단의료복합단지' 구축 ('20~'29)
 -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('19~'23), 국립 면역치료연구원 구축('20~'24),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('22), 치매 등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개발('19~'21), 해양 융합 바이오활성소재 신산업 기반 구축('20~'24)

■ 「우주·항공(드론)」 산업 육성

- 나로 우주센터 기능을 특화시켜 교육·체험·관광 연계 활성화 도모
 -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도화('19~'21),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('20~'26)
- 고흥 항공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'항공(드론) 산업' 육성
 -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('18~'21),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('12~'21), 산업용드론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('19~'22),
- 항공센터 기반 유·무인기 산업 선점을 위한 드론산업 특구 추진

■ 「e-모빌리티」 산업 육성

- 개발·평가·인증 등 기업지원 시스템 확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
 - 사용자 경험랩센터('19~'22), 지식산업센터('19~'22),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('20~'22),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지원 실증('19~'25),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('19~'21), '19년 국제 스마트 e-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
- 초소형 전기자동차 특화 개발을 위한 'e-모빌리티 특구' 조성

■ 「에너지신산업」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

- 한전공대의 혁신도시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산·학·연이 집적화된 '에너지 사이언스 파크' 조성 가속화
 - 에너지산업 융·복합단지·국가혁신클러스터·에너지특구 지정, '22년까지 1천개 기업 유치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R&D 기관 이전 추진
 - 에너지-ICT 융합 지식산업센터('19~'21), 창업벤처타운('20~'24), 개방형 혁신연구실('18~'22), ESS 실증단지 등 인프라 구축
 - 신재생에너지 연계 70KV 신송전 전력기기 기술개발·실증('19~'22) 등 기술개발
-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에 맞춰, 지역 특성에 맞는 **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**
 - 전남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여수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 추진
 - '22년까지 수소차(205대), 수소충전소(3개소) 단계적 보급
 - 온실가스 전환 수소에너지 산업화 실증 시범사업('20~'23),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연계 수소에너지 공급 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 Test Bed 구축('20~'23)

■ 도민 체감형 「재생에너지」 확대

- 재생에너지 확충 시 도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함께 공유하는 **주민소득 성장 비즈니스 모델 발굴**
 - 5GW 도민발전소 기본계획 확정('19.1월),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('18~'22, 70개소), 영농형 태양광 조성('18~'22, 50개소)
-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충 시 **지역주민과 기업체 참여 확대**
- 민간주택 3,000가구에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■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「R&D 역량」 강화

-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('22년까지 830개소) 등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
- 지역 **현안 해결형 R&D 사업**을 유치(47개 과제)하고, 신성장 산업 분야 **국가사업 유치**를 위한 **기획과제 발굴**(바이오, 수소 등 30개 과제)

2 「주력산업」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■ 「조선산업」의 재도약 기반 마련

- 중·소형 조선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, 친환경·레저 선박 등 조선산업의 다각화 도모
 - 조선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('19.3월), 고용·산업 위기지역 기간 연장('20.5월까지)
 - 중소형선박 공동건조시설('18~'22) 구축, 레저선박 부품·기자재 고급화, 알루미늄 선박건조 지원센터 구축 등
 - 중소선박 LNG추진시스템·LNG병커링 국산화 기술개발,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육상관리 실증 등 R&D 본격 추진
-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유치 등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의 거점화
 - 해양경찰 서부정비창('19~'24),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전남분소('20~'23) 등

■ 「철강산업」의 고도화

- 경량소재(마그네슘), 신소재(고망간, 니켈) 및 부품산업 기반 마련
 -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·부품 산업육성('20~'26), 고망간강 소재가공 상용화 기반 구축('20~'24),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육성 기반구축('18~'22) 등
- 고기능성 금속소재 제조·가공 기술 등 연구개발 강화
 - 마그네슘 도금계 고내식 제조기술, 고망간 난삭소재 가공 시스템, 니켈소재 제조기술 등

■ 「석유·화학산업」의 고부가가치화

- 고기능성 고무소재·부품, 정밀화학 등 첨단 화학산업 인프라 확충
 - 고기능성 특수 탄성소재 산업 고도화('20~'24), 폐플라스틱 산업화 기술 실증기반 구축('20~'24), 첨단고무 상용화 지원센터('19.2월 준공) 등
- 고부가가치 첨단 화학소재 제조기술 등 연구개발 강화
 - 자연 생분해 가능 비닐·플라스틱 소재 및 초경량 고강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등

3 「중소기업」과 「소상공인」의 성장 지원

■ 「중소·벤처기업」 경쟁력 제고

- '스마트공장' 보급 확대('19년 125개사)를 위해 기업부담금 완화(40~50%→20%), 자금 융자 지원(3천만원 한도) 등 추진
- 정책자금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
 - 자금규모 확대(4,300→4,500억 원),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인센티브 제공
-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기관 확대 등 도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
 - 혁신도시 공공기관, 도교육청, 22개 교육지원청, 금융기관(농협, 광주은행) 추가
 - 홈쇼핑·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지원(34개사),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(25개사) 등
- '창업지원 종합 플랫폼' 운영('18.12월)으로 원스톱 창업서비스 제공
 - 창업기관(27개) 통합관리, 창업정보 제공, 온·오프라인 1:1 전문가 매칭(연 500명)

■ 「소상공인」 자생력 강화

-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금융 애로 해소 지원
 -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(1,850명),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및 제로페이-전남 발행
 - 도·시군 합동 출연(60억 원)으로 신용보증 규모 확대, 소상공인 창업·경영안정 자금 규모 확대(800→1,000억 원),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(2개소→22개 시·군)
-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
 -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(8,982개 점포), 전통시장 시설현대화(21개소) 등

■ 「상생 노사문화」 정착 및 「노동권익」 향상

-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'12년 연속 우수기관' 선정
 -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정례화(월1회), 노사화합프로그램(14건)·협력사업(6건) 지원
- 비정규직노동센터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합한 '전남 노동권익센터' 설치를 통해 노동권익 강화 도모

4

「좋은 일자리」를 늘려 인구회복 전환점 마련

■ 「일자리 지원체계」 강화

- '일자리 플랫폼'이 기획부터 집행, 취·창업 지원, 평가까지 **일자리 컨트롤 타워**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
 - 일자리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일자리평가분석센터가 일자리플랫폼에 입주('19.3월)
- '전라남도 일자리 통합망'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맞춤형 **일자리 정보 제공 기반** 마련 ('22년까지 7,500명 취업 목표)

■ 「청년이 선호」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

- '청년 마을로·내일로 프로젝트' 지원 인원 확대(800→900명)
 - (마을로) 청년활동가에게 2년간 인건비와 3년차 정착지원금 지원
 - (내일로) 청년근로자에게 1년간 인건비와 연관 기업 취업지원
- '구직활동수당' 신규 지원 및 '청년 근속장려금' 지원 확대
 - (구직활동수당)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, 취업 성공금 50만원 지원
 - (근속장려금) 3년간 최대 12백만원 → 4년간 최대 20백만원
- 대학 재학생 '산학협력취업패키지(13→17개)' 과정과 특성화고 졸업생 '선취업 후진학 과정(2→4개 과정)' 운영 확대
- 도-LH '일자리 꿈터(공간 활용)', '일자리 카페(4→10개 시군)' 운영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오프라인 소통 강화
-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**산업·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** 지속 추진(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등)
- 수요자 중심의 **취업지원서비스 강화**로 구인·구직 미스매치 해소
 - 온·오프라인 잡매칭데이('22년까지 25회), 청년 희망버스('22년까지 48회)

■ 「사회적경제기업」과 「마을행복공동체」 육성

- 사회적경제 진입 촉진을 통한 **사회적경제 양적 성장**을 유도하고, **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**을 위한 자립 지원체계 확충
 - 사업개발비 지원(50개 기업)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화 유도
 - 성장지원센터 '소셜캠퍼스 온(溫)' 유치 추진('19.2월), 무담보 신용보증 지속 지원 (연 30억 원 보증), '전남 사회적경제 보부상단'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결속력 강화
- **마을 행복공동체 2,000개 육성**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및 조기정착 지원체계 구축
 - 씨앗단계(120개), 새싹단계(25개), 열매단계(5개) 등 단계별 지원확대
 -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(3개소), 마을 행복지수 개발·활용(100개), 마을 행복디자이너 양성(50명)

■ 「인구감소를 제로화」 본격 추진

-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**인구 유입·정착 기반 조성**
 - 도시 근교권에 문화·복지·교육시설 등을 갖춘 공동주택단지 및 전원 주택 단지를 조성해 '귀촌 인구유입 벨트' 구축
 -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, 빈집을 활용한 청년 공유공간 조성 등 시·군 특성에 맞는 '2040 젊은 세대 유입·정착 모델' 지속 발굴
- **귀농어·귀촌 유치**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
 - 수도권 대도시민 유입확대를 위한 '귀농어·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' 설치
 -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'찾아가는 귀농어·귀촌 설명회 확대(5→10회)
 - 귀농어·귀촌의 성공가능성을 발견하는 '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' 운영(500팀)
- **청년이 전남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책** 지속 추진
 - 지역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'청년센터' 시·군 확대(4→8개소) 설치
 - 청년 취업자 '주거지원금(월 10만원)', '희망 디딤돌 통장(2,000명)', '꿈사다리 공부방(120개 지역아동센터)' 등 청년 지원시책 추진

5 일자리 창출 중심의 「투자유치」 전개

■ 「일자리창출 효과」가 큰 기업 집중 유치

- 주요 기업들의 최신 투자동향 파악,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투자자문 기구인 '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' 본격 구성·운영
- **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**를 통해 투자 잠재기업 적극 발굴
 - 도·시군·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 IR 강화
 -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산업별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찾아가는 투자유치 전개
- **우리 도가 강점을 갖는 분야**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전개
 - 에너지신산업, 지식정보문화산업, 의약·생물산업, 전기자동차, 우주·항공 등
-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**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앵커기업**을 유치해 에너지밸리 조성 가속화 도모 ('19년 70개사)
- 보조금 지원요건인 **산단 분양률을 상향 조정** (분양률 50%→80%)

■ 투자기업 안착을 위한 「사후관리」 강화

- 투자기업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 창업일 등을 '**기업의 날**'로 지정하고 '**기업 氣 살리기**' 사업비 지원('19년 7개사)
- **PM(Project Manager)**을 지정해 투자 정보 취득 시점부터 공장 가동 후 1년까지 **원스톱 맞춤형 서비스** 제공 (630개 기업 대상 206명)

■ 「글로벌 기업」 투자유치

- **대륙별 맞춤형 투자유치**를 통해 연관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
 - (유럽) 정밀화학·에너지신산업, (북미) 관광·농수산물 가공·부동산 개발, (아시아) 정밀화학, 식품가공, 자동차 부품 등 대규모 고용창출형 기업
- **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**(세풍산단 내)해 외국기업 추가 입주수요 대응

2

전남 관광·문화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

섬·해양 관광과 내륙관광을 잇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'관광 산업'을 전남의 미래를 이끌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❖ 섬·해양과 내륙을 잇는 관광 인프라 확충.....29
- ❖ 관광서비스 질 개선 및 관광 마케팅 강화.....31
- ❖ 문화·예술 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32
- ❖ 체육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.....33



1

섬·해양과 내륙을 잇는 「관광 인프라」 확충

■ 「섬·해양」을 기반으로 한 관광명소 개발

- 신안 압해~해남 화원, 여수 화태~백야 연륙·연도교의 예타 면제를 계기로 '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' 구축 가속화
 - 영광~여수~부산 해안관광도로 단절구간 연결,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,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,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
- '천사 대교' 개통('19.3월)에 대응한 서부권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
 - 자은해양관광단지('18~'27) 및 흑산 해양항공관광단지('19~'26) 조성 추진
 - 목포 고하도 해상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('18~'23)
 - 무안 노을길 테마공원 조성('18~'20), 영광 칠산타워 연계 개발('19~'22)
- 해양관광 거점에 숙박·체험·레저시설을 확충해 '체류형 명품 휴양 관광지'를 조성하고, 해양 치유·레저 관광 기반 조성
 - 여수 챌린지파크('18~'22), 진도 대명리조트('16~'22), 목포 해상케이블카('15~'19),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('16~'20)
 -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단지 조성, 청소년해양교육원·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
 - 해양레포츠센터('19~'22), 해양레포츠대회(7회), 체험교실(8개소) 등
- '가고 싶은 섬 가꾸기'를 내실화(연 2개 섬)하고, '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'를 차질 없이 개최('19.8.7~11)
- 여수세계박람회장에 '국제 전시·컨벤션센터'를 건립하고, 특색 있는 숙박시설과 경관을 활용한 '중·소규모 휴양형 마이스' 육성
 - 컨벤션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('18.12월~'19.4월), 예타신청('19년 하반기)
- '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프로젝트' 적기 추진('17~'24) 및 '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' 내 국민휴양마을(관광호텔) 조성('18~'21)
 - 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('19.2월~10월), 사업비 국고지원 건의(50억 원)
- 목포권역을 문체부 '관광전략거점도시 육성사업' 대상지로 포함 추진
 -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 대비 도 자체 연구용역 완료('18.12월~'19.1월)

■ 「생태·역사」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

- 도내 생태 녹색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(7개 분야, 135개 사업)
 - 관광지 개발(4개), 문화관광(73개), 생태녹색(18개), 탐방로안내체계(14개), 국민여가캠핑장(2개), 관광안내체계(21개), 전통한옥 숙박시설(3개)
- 전남과 교류 인연이 있는 외국 역사인물의 유적지를 복원·정비
 - 여수 '조·명 연합수군 테마관광공원' 및 순천 '정유재란 전적지 평화공원'('18~'20)
 - 강진 하멜촌 조성('13~'21), 고흥 마리안느 마가렛공원 조성('18~'20)
 - 중국 관련 문화교류 관계를 집약 전시할 '황해교류역사관' 건립('19~'21)
- '노후 관광지 재생사업'을 통한 도내 관광지 매력도 제고
 - 노후 관광지 재생 선도사업 본격 추진 : 화순 도곡온천 관광지('18~'20)
 - 도내 주요관광지 노후시설 개선·보강 : 지리산 온천관광지 등 4개소
- 기 조성한 '남도명품길'의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대한민국 대표 '걷기 여행길'로 관광 상품화하고, 2차 사업('19~'21) 본격 착수
 - 기 조성한 해남 달마고도길, 강진 바스락길 등의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보강
 - 2차 사업(담양 산막이길, 화순 너릿재 옛길, 완도 생일 섬길)
- 체계적인 관광개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주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정부 주도의 '광역 관광개발계획'에 반영 추진
 -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('19~'30, 전남 8개 시·군, 광주, 경남), 전라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('19~'30, 전남 22개 시·군, 광주, 전북)

■ 「지역관광 전담기구」 설립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

- 지역관광의 컨트롤타워가 될 '지역관광 전담기구' 설립 본격화
 -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('18.12월~'19.5월), 행정안전부 승인('19.8월), 조례·정관 등 제 규정 마련('19년 말), 출범('20.1월 목표)
- 관광업무 관계부서 합동 '전남관광전략회의' 전국 최초 운영
 - (구성) 9개 실·국, 2개 출연기관, 22개 시·군, (운영) 분기별 개최
- 주민사업체 육성을 선도하는 '청년관광기획자' 활동 지원(멘토링 등)

2

「관광서비스」 질 개선 및 「관광 마케팅」 강화

■ 국내·외 관광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「관광환경」 조성

- ICT 기반 실시간 위치정보, 관광지 무료해설(외국어 포함) 등 「스마트 관광정보 안내시스템」 구축 및 서비스 제공('19.6월부터)
- 전남·광주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「남도패스」 운영 활성화 추진
 - 가맹점을 대폭 확대(100→200개), 코레일 등과 연계상품 발굴·운영
- 무안공항 면세품 인도장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■ 「온라인」 중심으로 전남관광 집중 홍보

- 이용자층이 넓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전남관광 입체적 홍보
 - SNS 매체를 활용한 바이럴(Viral) 마케팅, SNS 맞춤형 관광홍보 콘텐츠 보급, 국내·외 공중파 방송 홍보 등
- 개별 관광객 맞춤형 전남 여행상품 국내·외 온라인 판매 확대
 - 중국, 일본, 대만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여행사이트에 개별 여행객 관광상품 판매
- 젊은 층이 선호하는 테마 관광상품 개발·홍보를 위해 대학생, 유학생 등이 참여하는 관광사진 공모전, UCC 영상 공모전 개최

■ 「항공·크루즈」를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

-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노선 확대(9→15개 노선) 및 현지 홍보 강화
 - 해외SNS·매체광고(TV, 신문, 옥외물), 여행사설명회(10회), 팸투어(3회) 등
- 여수 크루즈항에 국제크루즈선 유치(10항차 목표) 및 현지 홍보 강화
 - 한류이벤트, 현지광고(SNS, TV, 잡지), 선사·전문여행사 설명회(5회) 등
- 해외 '관광마케팅 협력관제' 확대 운영(대만→대만·일본·중국)

3 문화·예술 자원의 「가치와 품격」 제고

■ 전남의 우수한 「문화·예술」 자원의 재조명

- '남도문예 르네상스' 추진 및 '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' 준비
 - 자원 간 융·복합과 시·군 동참을 유도해 추진동력 확보(3개 분야 28개 사업)
 - 가칭 '남도문예 전시 컨벤션 센터'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('19.3~9월)
- '이순신 호국 관광벨트' 조성사업 본격 추진
 -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, 목포 고하도 역사유적공원 등 34개 사업
- 남도 정신문화 계승·확산 기반 조성 및 인문학 작가 지원
 - 의병정신 선양을 위한 '호남의병 역사공원' 조성 기본계획 수립('19.9월까지)
-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유적 발굴·분포현황 조사(7개 사업) 및 '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' 유치·건립('18~'22) 추진
-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·정비로 문화재 가치 제고와 관광 자원화
 - 문화재 보수·정비(457건), 문화재 돌봄(769개소), 재난 방지시설(146개소)

■ 도민 「문화향유 기회」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

- 도립미술관은 '20년 10월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 추진
 - 운영 조례 제정('19.5월), 구조물 완공('19.9월), 미술관장 선임·소장품 구입('19 하반기)
- 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·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
 - 작은 영화관(4개소), 찾아가는 영화관(35회), 도서관 24개소(공공 14, 작은 7, 마을 3)
 - 문화도시·문화마을(7개소), 산업단지·폐산업 시설 활용(2개소, '16~'20) 등

■ 「콘텐츠 산업」 생태계 구축 및 「공공디자인」 특화 개발

-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ICT를 융·복합해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도모
 -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(나주), 체감형 게임센터(나주), 전남 콘텐츠코리아 랩(순천)
-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(2개소) 및 상품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(30개사)

4

「체육 경기력」 향상과 「스포츠 마케팅」 강화

■ 전국체전 개최지 위상에 맞는 「전문체육 경기력」 향상

- 엘리트 선수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육성을 위한 **직장팀 창단**(4개팀)
 - 도청 2개팀(스쿼시, 우슈), 시·군 2개팀(나주 육상팀, 함평 레슬링팀)
- 종목별 **우수선수 지원 확대**(282→312명) 및 **우수지도자 보강**(38→47명)
- 고등학교·대학교 체육팀 **전력분석 관리시스템** 구축(11개교, 20종목)

■ 「일상에서 누구나 쉽게」 즐길 수 있는 체육 여건 조성

- **생활체육 활성화**로 도민 중심의 스포츠 복지 구현
 - 스포츠클럽 운영(9→11개소) 및 광장지도자 현장 지원(35→38개소) 확대
- **소외·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누리는 스포츠 복지서비스** 제공
 -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(17 → 20천명)
 - 도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운영(론볼, 골볼, 축구, 배구)
 -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(13개),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사업 운영(1,200개소) 등

■ 수요자 중심의 「공공체육시설」 확충

- 정부에서 지원하는 **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사업** 최대한 확보
 -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(5개소), 체육분야 생활SOC 시설 확충(76개소)
- 어르신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**소규모 체육시설 증·개축**(54개소)

■ 각종 「스포츠대회」 지원 및 「스포츠 마케팅」 강화

- **국제 스포츠대회**(2개) 및 **전국 단위 스포츠대회**(103개) 개최 지원
- 저장성·장시성 등 중국 교류지역과 **청소년 스포츠교류** 확대(2~4개 대회)
- 3대 국수 배출지역 위상에 맞게 **대규모 바둑대회** 개최 지원(4개 대회)

농축어가 소득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

친환경·스마트 농축어업의 확산을 기반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고,
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.

- ❖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육성 37
- ❖ 저비용·고소득 농업 기반 마련 38
- ❖ 농업 혁신모델 개발·확산 40
- ❖ 환경친화형 축산 확대 41
- ❖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42
- ❖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43
- ❖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45
- ❖ 살고 싶은 농산어촌 건설 46



1

「유기농 중심」의 친환경 농업 육성

■ 친환경농산물 「품목 다양화」 및 「유기농업」 확산

- 벼 이외 과수·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시·군 단위 지역별 특화품목 단지조성 유도
 - 유기농산물 면적 확대 : 11,469→11,500ha
 - 인증품목 비율 : (벼) 73→70%, (과수·채소 등) 27→30%
 -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과수·채소 지원단가 인상(100천원↑/ha)
-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명농업 촉진
 - 친환경농업교육관(담양·영암·보성)을 활용한 유기농 실천교육 강화
 - 유기농 명인의 현장중심 저비용 유기농법 실천 및 유기농자재 제조기술 전수
 - 유기농업을 생산·유통·관광과 연계한 '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' 조성

■ 친환경농산물의 「생산 조직화」 및 「물류 기반」 확충

-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시·군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(교육·물류·판촉)
 - 지역 농협과 농가 간 계약재배 확대(8→15농협)를 통해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
- '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'를 중심으로 광역형 공급망을 구축해 과부족 물량 수급 조절

■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「유통채널」 확대

- 서울시 등 타 시도 학교·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납품 확대
 -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(11,859→12,000톤), 공공급식 식재료 확대(224→270톤)
-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확대 등 대량 소비처 발굴로 전국 판매망 확보
 - 친환경농산물 가맹점 활성화(109→115개소), 대량 소비처 발굴(106→111업체)

2 「저비용·고소득」 농업 기반 마련

■ 안정적인 농산물 「생산기반」 마련

- 쌀 수급안정을 위한 '논 타작물 재배 확대(10,698→11,661ha) 지속 추진
 - 쌀값 상승률 감안 지원단가 인상(공 280→325만원/ha), 수확기계 지원
 - 품목별 단지화 등 타작물 재배가 농민의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원
- 조직화·규모화·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품목별 '밭작물 공동경영체', '들녘경영체' 지속 육성 및 농기계 보급 확대
 - 밭작물 공동경영체(15→20개소) 및 들녘경영체(128→146개소) 육성,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(68→72개소), 드론 방제(4작물) 및 소형 편의장비(5종) 기술개발
-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주산지 중심 자율적·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
 - 계약재배 확대, 농업관측자료 공유, 채소가격 안정제(6품목),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

■ 생산자·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「유통체계」 구축

- 나주 호남권 물류센터와 연계한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과 유통업체 비용 절감
 - 개별적으로 물류를 이용하지 않고, 나주 호남권 물류센터와 서울 공동물류 창고 활용(생산지→나주 호남권 물류센터→서울 공동물류 창고→소비지)
-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'전남 푸드플랜' 수립
 -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체계를 구축하고, 복지시설, 병원, 군부대 등으로 확산·운영
-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확대(23→27개소) 및 활성화 추진
 - 대도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(광주), 시·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(3개소),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(1,072건), 순회수집 차량 운송시스템 구축

■ 부가가치가 높은 「농식품산업」 전략 육성

-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해 **친환경 농촌융복합산업** 기반 확대
 - 생산, 가공·유통, 체험·관광이 집적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추가 조성(3→4개)
 - 인증 경영체 확대 육성(214→250개소)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역량 강화
- **식품가공 산업기반**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
 - 농식품 가공·HACCP시설 확충(117→133개소), 전통식품산업 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(52→55개소),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('19~'21)
- 학교급식에 **GMO 없는 안전한 식재료** 공급으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
 - 지원 규모 : 2,442개소, 213천명(어린이집 52, 유치원 20, 초등 94, 중등 47)
- '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**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**에 맞춰 PLS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■ 농가 「소득 안정」 및 「협치 농정」 실현

-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연중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'**농업인 월급제**' 본격 시행
 - 16개 시·군, 6,000농가 / 매년 3~10월(8개월 간), 농가당 300천원~2,000천원
- **쌀·밭·조건불리·친환경 직불금, 벼 경영안정대책비** 등 지속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
 - 밭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원단가 인상(ha당 5만원)
- **농업·농촌 자원(경관+숙박·음식·체험)의 연계·활용**으로 주민 농외소득 증대
 - 농촌 현장·주민 주도의 관광프로그램 개발, 농촌체험 활성화(인성학교 17→20개소) 및 농업유산 가치 확산 홍보(연중)
-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농정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**현장 중심의 '농정혁신위원회'** 운영으로 **협치농정** 구현
 - 운영 조례 제정('19년 상반기), 농업·농촌 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 발굴(분과위)

3 농업 「혁신모델」 개발·확산

■ 「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」 조성

-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해 아열대작물 연구·재배·가공·체험 시설을 갖춘 대규모 '농업클러스터' 조성('19~'23, 120ha)
 - 농업클러스터 내 기후변화 전담 기구인 '국립기후변화농업연구소' 유치 추진
 - '국립 에코난대식물원'과 연계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
-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**유망 소득작목 재배기술** 개발·보급
 - 유망 아열대작물 기술개발(애플망고 등 9종) 및 농가 현장실증(57개소), 권역별 단지조성(5개소) 등

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「스마트농업」 확산

- 청년창업과 기술혁신,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된 첨단농업 단지 '스마트팜 혁신밸리' 조성('19~'22)
 - 청년창업 보육센터, 임대형 스마트팜, 실증단지 등(20ha 이상) 집적화
- 농촌의 고령화·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축산업에 **ICT 융복합 기술**을 적용한 '보급형 스마트팜' 시설 확대
 - 시설원예·과수 ICT 융복합 시설·장비 보급(118호·76ha→161호·107ha)
 - 축사시설 현대화(100호), 지능형 축사 ICT 시설(50호), 녹색축산육성기금(43호)
 - 현장 기술지원 거점센터(8→11개소), 농협과 협업해 보급형 스마트팜 신규 보급(25개소)
- 다양한 품목의 **스마트팜 모델** 개발을 통해 스마트 농업의 현장 확산 지속 추진
 - 스마트팜 온실 신축(2개소), 시설원예·노지작물·곤충·축산 등 품목별 지능 정보 기반 스마트팜 모델 개발
- 스마트팜과 연계한 **태양광에너지 활용** 및 **병행생산**이 가능한 작목을 선정해 생산기술 개발
 - 한전과 공동으로 농작물·태양에너지 병행생산 모델 개발(6→14작목)

4 「환경친화형」 축산 확대

■ 「안전한 축산물」 생산기반 마련

- 산지 등에 대규모 농공단지 형태로 '친환경 축산 융복합단지' 조성 (양돈단지 1개소, 40ha), '국립축산과학원 축산개발부' 이전 지원(함평)
- 친환경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등 지정 확대
 - 친환경축산물 인증(2,000호),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(350호),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(500호),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(4개소)
- 무허가 축사 적법화(6,605농가)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
 -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(1개소), 악취저감시설 지원(50개소), 악취저감제 공급(800톤)

■ 「친환경 축산물」 가공·유통·판매 활성화

- 친환경 축산물 가공·유통·판매시설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, 전남산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유통 활성화
 - 식육, 계란 등 축산물 가공시설 설치(10개소)
 - 한우 광역브랜드 사육 비중 확대(171→200천두), 송아지브랜드 육성(2→4개 시·군)
- 친환경 첨단시설을 갖춘 '축산물종합유통센터'를 나주 혁신산단 내 조속히 건립해 축산물 유통구조 단일화 도모('17~'20, 21천㎡)
- 말, 곤충 등 틈새 가축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(5개 분야)하고, 조사료 품질 등급제 확대 및 논 타작물로 조사료 재배

■ 「동물질병 차단」으로 청정 전남 이미지 제고

- 고병원성 AI에 대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상시 방역 추진
 - 철새도래지 소독(주1회), 오리농장 방역초소 운영(20개소), 농장 주위 생석회 살포 등
-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백신을 100% 지원하고, 일제접종 정례화 (4, 10월) 및 취약지역·농가 특별관리 등 방역 강화

5 「산림 자원」의 가치 제고

■ 「숲속의 전남」 만들기 지속 추진

- 특색 있는 경관을 살린 명품 숲 조성으로 관광자원화
 - 향토 수종, 산업화 수종 등 특화된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연결(6개소, 140ha)
-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숲과 미래가치가 있는 숲 조성
 - 주민참여숲(55개소), 나무심기 행사(4회), 경관숲(991ha), 소득숲(1,377ha), 미세먼지 차단숲(2개소), 도시 바람길숲(1개소), 도시숲(60개소) 등
- 맞춤형 숲 가꾸기와 수목 활용 다각화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
 - 숲가꾸기(21,525ha), 칩덩굴 제거(7,200ha), 나무은행 운영(22개소) 등

■ 「국립 에코난대식물원」 조성 및 「정원 인프라」 확충

- 전남의 비교우위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'국립 에코난대식물원' 조성
 - '20~'24 / 200ha /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('19.1~10월, 농업 연구단지 연계)
- '국립한국정원센터' 건립('19~'22, 연구·문화·교육)을 본격 추진하고,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확산
 - 특색 있는 정원 조성(8개소), 민간정원 등록(10개소) 등 정원 6차산업화 기반 구축

■ 차별화된 「산림복지」서비스 제공 및 「임산업」 경쟁력 강화

- '국립 화순 치유의 숲' 조성('19~'21) 등 산림 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
 -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(2개소), 치유의 숲 개장(3개소 / 연구소, 광양, 고흥)
- 테마가 있는 숲길·레포츠 시설과 산림 교육 문화 기반 마련
 - 등산로 정비(100km)·연결(2개소), 산림레포츠시설(4개소), 유아숲체험원(13개소) 등
- 임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기반 조성 및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구축
 - 생산단지 규모화(2종), 생산유통기반 조성(2종) / 임도신설(88km), 구조개량(58km) 등
- 3대 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, 산림 병해충) 예방 및 신속대응 기반강화
 -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운영,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 확충,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

6 수산업의 「미래 경쟁력」 확보

■ 「양식어업」의 성장기반 구축

- **친환경·에너지 절감형 시설 확대 보급 및 생산성 향상 지원**
 - 에너지 절감 양식장비 보급(150대), 친화형 배합사료 공장건립(1개소), 배합사료 공급(85여가), 어류양식장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(2,889ℓ) 등
- **양식어가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첨단 '스마트양식'을 육성하고,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양식 인프라 구축**
 - 스마트양식 시범모델 및 배후부지 조성(1개소, '20~'22),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 및 양식장 용수정화 시설 보급(6개소), 양식수산물 피해예방 어장 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, 새꼬막·가리맛 조개 기술집약적 양식기술 개발
- **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비 보급 및 시설 현대화**
 - 어패류 가두리 세척기 및 해조류 자동이식기 등 지원(30개소), 고가 양식장비 임대(3개소), 수산양식 및 종자배양 신축·증축 시설비 지원(100개소)

■ 미래 대비 「전략 양식품종」 육성

- **우수형질을 가진 수산 신품종 및 종 보존 기술 개발·보급**
 - 고수온에 내성이 강하고 다수확성 김 신품종 지속 개발·보급(해풍2호 출원 중), 참조기·부세·꼬막·키조개·툇 등 양식기술 개발·보급
- **품종별 특성과 생산 여건을 고려한 육성 전략 수립·운영**
 - (해조류) 최대 공급지에 맞는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, (전복) 친환경 생산 환경 관리, (해삼) 대 중국 수출 유망 품종으로 대량 생산기반 구축, (새우) 수입대체를 위한 고밀도 생산기반 보급, (꼬막) 지역 특화품종으로 대량생산 기반 조성
- **고부가가치 미래 유망품종에 대한 양식 산업화 유도 지원**
 - 조기, 가리비, 바리류, 바다송어, 감태·곰피 등 육성 지원(종자 구입비, 35만 마리)

■ 수산물 「고차가공」 기반 확충

- 목포 '수산식품 수출단지 건립사업('19~'22)' 예타 면제를 발판 삼아, 가공·저장시설 확충 등 **고부가가치 산업** 기반 구축
 - 수산식품 거점단지(2개소), 수산물 산지가공시설(27개소),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(44개소), 해조류 자동탈수기(8대), 수산물 저온저장시설(대중형 7개소, 소형 333개소)
- 지역 수산물 산업화 기반 확충 및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
 - 별교 꼬막 6차 산업화, 미활용 해조류 자원화시설, 바다송어·연어류 산업화 등
 - HACCP시설 보급(4개소),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지원(11명) 등
- 천일염 생산 환경 개선으로 **고품질 천일염 생산기반** 조성
 - 염전 바닥재 개선(168ha), 취·배수용 배관 설치(12개소), 포장재 지원(2,666천개), 장기 숙성·보관 저장시설 확충(40개소),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('18~'21) 등

■ 수산물 「유통」기반 및 「판로」 확대

- '산지 거점형 유통시설' 확충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단계 간소화
 - 장흥 산지거점유통센터('18~'19), 완도항 수출물류센터('18~'19), 해남 전복유통시설('18~'19), 광양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('16~'20), 진도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('18~'20)
- 현대화된 위판시스템 구축, 위생관리 기반 확충 등으로 '**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**' 마련
 - 목포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('14~'20), 신안 다기능 수산물 위판장('17~'20), 무안 수산물 위판장('18~'19), 진도 낙지 위판장('19) 등
- 소포장재 지원, 판촉행사 개최, 직거래 선도 어업인 양성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 도모

■ 「어가 경영안정」 지원

- 어업인 재해보험 제도개선(지방비 사후정산 폐지)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,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(장비 구입지원 500대 등)
- 정책자금 이자 지원(어업인 부담분 1%),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(22개 섬)

7 지속가능한 「수산자원」 조성

■ 「수산자원」의 체계적인 관리

-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 및 경제성 어종 방류
 - 인공어초 설치(336ha), 수산종자 방류(22백만 미), 내수면 유희저수지 어족자원 조성('18~'20), 꼬막·낙지·해삼 자원회복(3종),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(2개소)
 - 자율관리어업 질적 성장 유도 등으로 어업인 주도 수산자원관리 역량 강화
- 수산 자원량을 고려한 어선 감척 및 어선어업 생산기반 확충
 - 연안어선 감척, 구획어장 재배치, 어업자원 유해생물 구제, 복합다기능부잔교 및 소형어선인양기 설치, 어업인 편의시설 조성, 노후장비 대체·LED등 보급
- 바다식목일 기념행사(완도), 바다숲 조성(180개소) 등 바다 식목사업 추진

■ 「해양쓰레기 제로화」 및 해양생태계 보전

- 해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'해양쓰레기 제로화' 집중 추진
 - 해양쓰레기 정화사업,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,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,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, '연안정화의 날' 운영 등
- 해양 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어장 환경 개선
 - 해양보호구역 탐방로 정비,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(6개 시·군, 8개소), 해조류·패류·어류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, 폐어구 수거, 종자발생장 조성(4개 시·군)

■ 안전한 「조업환경」 조성

-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어선사고 예방 관리
 -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(3,503대), 안전조업 지도·점검(600척), 합동 점검(4회)
 - 조업현장 무선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해 '고흥 어업정보통신국' 신설('19.9월)
- 남획형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
 - 불법어업 사전예방 강화, 기업형 근해어선·불법 양식시설 등 테마 단속 등
 - 어업지도선 대체건조(2척, '19~'21),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단속·어업지도 기반 강화

8 「살고 싶은」 농산어촌 건설

■ 「농산어촌」의 생활기반 조성

- 청년 귀농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(2개 지구), 특화산업을 '생활문화 콘텐츠+일자리창출'로 연계하는 신활력 플러스 신규 추진(1개 지구)
- 중심지~기초생활거점~마을이 연결된 생활권 조성으로 기초서비스 제공
 -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(47개 지구), 맞춤형 마을 만들기(144개 지구) 등
- '어촌뉴딜 300' 사업 조기 착수와 공모사업 다수 선정 대응
 - 15개 시·군, 26개소('19년 전국 70개소), 개소당 평균 100억 원 지원
- 어촌종합개발 본격 추진을 통한 어촌 권역·마을별 특화개발
 - 권역단위 거점개발(17개소), 마을단위 특화개발(22개소), 생활기반 정비사업(5개소), 지역역량 강화사업(4개소) 등

■ 전남 농어업을 이끌어 갈 「농어업인」 육성

- '2019국제농업박람회' 차질 없이 개최(10.17~27, 전라남도농업기술원)
-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
 - 대학생 체험캠프 운영(160명), 농자·자금기술 등 청년농 종합 지원, 창업농장(14개소), 경영실습 임대 농장(4개소),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'혁신 창업 플랫폼'으로 활용
- 미래 어촌을 선도할 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
 -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(후견인 20명), 수산계 고교 실습장비 지원(3개교), 한국 수산벤처대학 등 수산계 대학과정, 유희수면 활용 유망품종 양식 창업지원(10개소)

■ 온정이 넘치는 「농어촌 공동체」 회복

-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(70→75세, 연 10→20만원),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(1,265→1,450개소), 농촌인력지원센터(22→25개소) 확대
- '작은 섬 큰 기쁨 사업'으로 온정 나눔 실천,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(16개소), 섬 주민 여객선 운임·생필품물류비 지원

4

지역 핵심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

지역발전을 앞당길 핵심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,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개발로 골고루 잘 사는 전담을 만들겠습니다.

- ❖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SOC 확충 49
- ❖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51
- ❖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52
- ❖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53



1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「핵심 SOC 확충」

■ 「철도망」 구축

- 호남고속철도 2단계(광주송정~목포) 구간을 '25년 계획연도보다 2년 앞당겨 '23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
 - 2단계 구간 중 '광주송정~고막원' 구간 기존선은 '19년 내 고속화 완료
- 남해안철도(보성~목포, 82.5km)는 단선철도 건설과 전철화 동시 추진으로 '22년까지 개통 총력
- 경전선 전철화(광주송정~순천, 116.5km)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('19.1.29 대상사업 반영)
- 정부정책에 미반영된 SOC 확충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
 - 전라선(익산~여수) 고속철도, 서울~제주 고속철도 등

■ 「도로」 및 「연륙·연도교」 건설

- 완도~고흥~여수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, 목포~부산 해안 관광도로, 광주~고흥 고속도로(1·2단계)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도로망 확충 총력
- 국도는 압해~송공 등 20개 지구 확·포장 공사를 추진하고, 무안 일로~몽탄 등 9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
 - 제5차 국도·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노력 : 35개 지구, 332.1km
- 연륙·연도교는 영광~해제, 여수~고흥 등 11개 지구를 '22년까지 완공하고, 신안 압해~암태 천사대교는 '19년 3월말까지 개통
- 지방도는 '19년에 830억 원을 투입해 32개 지구(137.45km) 건설 추진
 - 나주 IC~동신대('19), 무안공항, 영산강 강변도로('20) 등 대형 사업지구 집중 투자로 구간별 개통 및 조기 준공 추진

■ 「공항」 활성화

- 무안국제공항은 '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과 통합하고,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선 다변화 집중 추진
 - 활주로 연장 국비 확보(5억 원)를 기반으로 국제선 수화물벨트 증설(1→2기), 면세점 확대, 주차장 확대 등 기반시설 개선 추진
 - 항공정비(MRO) 산업 등 연관산업 유치 및 중국·일본·동남아 등 국제선 확충
- 여수공항은 제주노선 증편과 김포노선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, 광양만권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저가항공사 유치
- 흑산공항은 '19년 착공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 통과 추진

■ 「항만」 경쟁력 제고

- 광양항은 항만 기반시설 구축으로 세계 10대 종합항만으로 육성
 - 항만물류 R&D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('18~'20)
 -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('18~'20)
 -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('18~'21), 낙포부두 리뉴얼(예타 중),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(132억 원)
- 목포항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개발
 -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('19~'21), 목포신항 제2차동차 부두 건설('19~'23),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(3억 원), 목포시와 합동 마케팅 실시
- 지방관리 항만은 재해예방, 해운·관광 유통 등 다기능 항만으로 조성
 - 완도·홍도 방파제 등 재해예방시설 확충, 진도항 여객부두 및 땅끝·나로도 물양장 등 다기능 시설 확충, 연안여객 터미널 신축(3개항)
- 지방어항은 핵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
 - 선착장 등 기반시설 확충(14개항), 어항 시설 보수·보강(11개항), 퇴적토 준설 및 해수 소통구 설치(6개항) 등

2 지역의 새로운 「성장거점」 조성

■ 「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」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

- 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건설 및 국제·연안 크루즈 운영
 - 신안 압해-해남 화원, 여수 화태-백야 연륙·연도교 등 예타면제 사업 조기 추진
 - 완도~고흥 간 해안관광도로, 평화의 섬 하의도까지 연결하는 신의~장산 간 연도교 등 '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' 2단계 사업 국가계획 반영 건의
- 남해안 연안을 따라 해양관광거점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

■ 「빛가람 혁신도시」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

-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
- 입주민의 편의 제공과 직결되는 정주 인프라 최우선 확충
 - 빛가람 종합병원 개원('20년),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('21년), 혁신도시~광주간 대중교통 정차 확대 (15→37개소), BIS시스템 구축 (49→57기)
- 산·학·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투자유치 여건 마련
 - 입주공간 제공, 임차료 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마련, 투자유치설명회 개최

■ 「솔라시도 기업도시」를 글로벌 관광레저도시로 개발

-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화가 완료된 솔라시도 개발 본격화
 - (구성지구) 주택 1,400세대 및 골프장 18홀 부지 조성 공사
 - (삼호지구) 골프장 45홀 운영('19.7월), 서측 내부진입도로 준공('19.8월)
 - (삼포지구)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 사업 추진(99.2억 원)
-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(영암 삼호읍~해남 산이면) '21년까지 준공

■ 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」의 경쟁력 강화

- 광양만권 철강·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단 개발
 - (울촌1산단) 분양 촉진 및 이차전지 연관산업 육성, (해룡산단) 뿌리산업 특화 단지 개발, (세풍산단)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 조성 등
-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과 경도 지구 등 국제적 관광·레저도시 조성

3 살기 좋은 「주거환경」 조성 및 「주거복지」 실현

■ 중소도시를 살리는 「도시재생사업」 추진

-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「도시재생 뉴딜사업」 시행
 - 중심시가지형, 주거지원형, 중심시가지형 등 기 공모 선정사업 본격 추진(25개소)
-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수리, 마을공방, 북카페,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「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」 시행

■ 살기 좋은 「주거환경」 조성

-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
 - 농어촌 주택개량(1,655동), 빈집정비(1,138동),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(189동)
- 은퇴자를 위한 매력있는 새꿈도시 조성
 - 장흥 로하스타운, 담양 대덕지구 등 4개 지구 1,900세대 조성
-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에 연접한 마을 앞 폭원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 보행로(16개소)와 갓길 정비사업(20개소) 추진

■ 「주거약자」의 주거안정 도모

-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에게 민·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 개·보수 등을 지원하는 「행복동지사업」 확대
 - 국비(복권기금)를 확보해 조립식 모듈러주택 공급 등 지원(200가구)
-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(~'22년)
 - 행복주택(3,330세대), 마을정비형(1,290세대), 공공실버(400세대) 등
- 초고령화 독거노인 세대의 주거공간을 집단화하여 노인 안심 효도주택을 공급하는 「전남형 안심 공동-홈」 조성(3개 마을)

4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「지역개발사업」 추진

■ 계획적인 「지역개발」로 성장거점 개발

- 성장촉진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인프라, 지역특화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**지역개발 지원사업 추진**(38개 사업, 532억 원)
- 해양 명품경관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해안 우수경관 조망시설 설치 등 **서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**
 -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, 호남선 남행열차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

■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「도시계획사업」 추진

- **쾌적한 주거용지 공급과 택지난 해소**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
 - (추진중) 무안 오룡, 순천 용당, 광양 와우, 담양 첨단문화 등 11개 지구
 - (실시계획) 목포 임성, 여수 만흥 등 3개 지구 / (지구지정) 순천 왕지2
- 압축적 공간구조, 경관·디자인 계획,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, 건강도시 등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**도시·군 관리계획 재정비**

■ 일자리를 만드는 「산업·농공단지」 조성

- 지역 산업 기반강화가 연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및 무안 항공특화(MRO) 산업단지 조성**
- 산업·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**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**
 - 특화농공단지 조성(곡성 운곡 등 6개소), 일반농공단지 조성(여수 화양 등 5개소)
 - 진입도로 개설(울촌 2산단 등 6개소), 공업용수 관로 매립(광양 세풍산단 등 2개소)
 - 순천 일반산단·여수 오천산단 재생사업, 노후 농공단지 개·보수(12개소)
- **산업용지 수요에 탄력적 대응으로 분양환경 개선**
 - 실수요자 개발로 전환, 신속한 유치업종 변경, 복합용지제도 도입 등

5

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

저출산·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,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.

- ❖ 저출산·고령화에 선제적 대응..... 57
- ❖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..... 58
- ❖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..... 59
- ❖ 여성·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..... 60



1 「저출산·고령화」에 선제적 대응

■ 「출산 친화형」 환경 조성 및 양질의 「보육 인프라」 구축

- 빈틈없는 맞춤형 분만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
 - 분만외래 산부인과(8개소)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(4개소) 운영,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확대(2→4개소)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
-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 - 난임부부 시술비(10회) 및 난임여성 한방치료(100명),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, 신혼부부 건강지원 및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
-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기반 조성
 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(114→140개소),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(89→100개소),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(1,206개소, 월 7만원), 누리과정 보육교사·종사자 수당(795개소, 월 2~5만원),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(13개소, 월 100→175만원)

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「안정적인 노후생활」 보장

-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, 저소득층 기초연금 확대(19.4월부터 25→30만원)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
 - 노인 일자리(33→40천명), 시니어클럽(6→10개소),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(19→30개소)
- 사회적 가족 관계망 구축을 통한 노인 돌봄 및 인권 강화
 - 고독사지킴이단 결연(2,097명), 재가노인 돌봄(59,260명), 응급안전 알림(15천세대), 인권지킴이단(148개소, 186명), 무료급식(6,332→6,532명),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(445→685개소), 공중목욕장(120→127개소)
- 치매예방에서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한 노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
 - 치매안심시설(35→53개소), 치매안심센터(22개 시군), 치매쉼터(1개소), 치매안심마을(22개소), 치매안심병동(632병상), 치매노인 배회감지기(14백대), 노인 결핵 전수검진(78천명)

2 촘촘한 「사회복지 안전망」 구축

■ 「맞춤형 복지서비스」 체계 구축

- 모든 읍면동(297개)에 설치된 복지전담팀이 중심이 되어 **찾아가는 복지서비스** 제공으로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 도모
 - 민관 합동으로 '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' 구성·운영
- 노인·장애인·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**맞춤형 사회서비스** 지원 강화 (32개 사업)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모
- '전남형 기본소득제'를 차질 없이 준비(연구용역, '19.2~6월)해 '20년 부터 선도사업 운영

■ 「저소득 취약계층」 기본생활 보장 강화

-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(월 1,355→1,384천원)으로 취약계층 생활수준 보장 현실화
-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공적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
 - 자활사업 활성화(2,920명), 희망키움 등 자산형성(3,321가구), 의료급여서비스 지원(75천명), 위기가정 긴급지원(12,116가구), 저소득층 공영장례 신규 지원(1,006명)

■ 「장애인」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(1,773→2,162명) 및 일자리사업 단가 인상(7,530→8,350원)
- 저소득 장애인 연금·수당 인상(48천명, 월 250→300천원)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(4천명, 10,760→12,960원)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 기반 조성
-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
 -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편의 증진, 복지시설 운영(226개소), 기능보강(31개소), 발달장애인 서비스(262명),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및 일시돌봄센터 설치(4개소)

3 「공공보건의료」 서비스 강화

■ 「의료 취약지」 보건의료 여건 개선

- **농어촌, 섬 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**
 - 보건기관 시설·장비 확충(169개소),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신규설치(7개소), 병원선 운영(166개 도서), 섬 주민 치매선별검사(10천명)
- **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**
 - 권역외상센터(1), 권역응급의료센터(2개소), 닥터헬기, 응급의료기관(38개소), 응급간호인력 파견(6개소), 취약지 원격협진(34개소), 재난 응급의료 무선 통신망 구축(72개소, 174대)

■ 지역사회 「건강증진」 의료 서비스 강화

- **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지원**
 - 지역사회건강조사(20천명), 통합건강증진사업(13개), 정신건강센터(22개소)
 - 암 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(286천명), 고혈압·당뇨병 등록 관리(54천명)
- **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**
 - 예방접종(23종 1,207천건), 만성 감염병 관리(3천명), 표본감시기관(47개소)
 - 역학조사반(23개반), 격리치료시설(52개소), 감염병관리지원단(11명)
- **‘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’ 설립(‘19~’23)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건의**

■ 「통합의료」 및 한의약 산업화 기반 구축

- **토종 한약재 품종 개발 등을 통한 미래 한의약 산업화 선점**
 -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(‘19.9.준공, 95억 원), 한약 토종자원 기반구축(14억 원), 약효 표준화(3품목), 유효성 검증(10품목), 한약재 지식재산권 확보(15건)
- **통합의학박람회 개최(‘19.10월 예정, 25만명 목표)를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서비스 구현**

4 「여성·가족」의 행복한 삶 지원

■ 여성의 「사회참여」 확대

- 여성창업의 단계별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활성화
 - 취·창업 대상 확대(9,050→9,502명), 창업경진대회 정착금 지원(10명)
 -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(4회),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(3개소),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(9개소)
- 양성평등 정책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책참여 기회 제공
 -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(42% 이상), 양성평등 키움단 운영(100명)

■ 다양한 형태의 「가족」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
 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통합센터 확대(16→21개소),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(40명)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120가구), 다문화가족 소통·교류공간 조성(7개소)
-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(월 13→20만원, 만 14→18세 미만) 등을 통해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

■ 「아동」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

-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확대
 -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(600→720시간, 시간당 7,800→9,650원),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(104개소), 급식도우미(381명),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(3→5개소)
-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
 - 아동보호전문기관(4→5개소)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(6→8개소) 확대
 - '19.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6세→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
 - '19.4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규 지급(월 30만원, 2년간)
 - '19.7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(임대주택 무료제공)

6

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안전이 일상이고 기본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고, 도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❖ 도민의 삶이 안전한 전남 구현 63
- ❖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65
- ❖ 자연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66



1 도민의 삶이 「안전한 전남」 구현

■ 「지역공동체」 안전문화 확산

- 중점관리 테마와 지역을 선정해 스토리가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고, 다양한 주민 참여시책 추진으로 **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**
 - 교통안전 '고맙습니다! 캠페인' 확산(TV 광고, 기획보도 등)
 - 시군 안전문화운동 지원,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, 안전보안관(343명) 활동 지원
- '19년에 **20만 명 도민 안전교육실시** 목표로 안전체험교육시설 지속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보강
 - 재난안전체험관 신설(7개소), 안전체험관·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교육 콘텐츠 보강, 초등학교 안전체험학습·자유학기제 안전체험교육과정 상설운영 확대
- 시기별·현안별 안전 위해요소와 고질적 안전경시 행위에 대한 **안전감찰 강화** 등 안전분야 **부패행위 감시체계** 구축
 - 교통안전시설 관리실태('19.2~3월), 고압가스 및 건설기자재 관리실태('19.4월), 거주용 가설건축물 및 소규모 공동주택 소방안전 실태('19.8월) 등

■ 「교통사고」 사망자 절반 줄이기 ('19년 10%)

-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,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을 중점 관리하는 '**사람 중심 교통환경**' 조성
 - 어린이·노인보호구역 정비(241개소), 상설시장 주변 생활도로구역 정비(10개소), 지방도·시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(Village Zone) 정비(5개소)
 - 교통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총괄 전담팀 신설(4명)
 - 지방도·시군도 과속구간, 교차로 등에 교통단속카메라 집중 확충(190대)
- 도시부 도로는 50km/h이하,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는 30km/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'**도시부 제한 최고속도 낮추기**' 시행
- 도·시군, 유관기관, 전문가가 참여해 **분기별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**

■ 「재난사고」 위험요소 선제적 관리

-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, 내실 있는 재난대응훈련 실시
 - 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정비(37종), 2019 안전한국훈련(46회),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(101개소)
 -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및 마을방송 적극 송출, 생활안전 CCTV 확충(36대)
- 「국가안전대진단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,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「재난위험시설 제로화」 실현
 - 2019 국가안전대진단 : '19. 2~4월 / 공공·민간시설 총 6,292개소
 - A·B·C등급 1,811개소(반기 1회), D등급 1개소(월 1회) 정기점검 실시
 - 어린이놀이시설, 승강기 등 생활밀착형 시설 안전사각지대 틈새요인 집중 관리

■ 체계적인 「자연재난」 예방 관리

- 일상생활 주변 '폭염저감 인프라' 보강 등 폭염대책을 강화하고, 물 관리체계 통합을 통한 '가뭄 걱정 없는 전남' 실현
 - (폭염) 무더위 쉼터(6,565개소), 그늘나무 숲, 쿨링포그, 쿨루프 등 확대
 - (가뭄) 지하댐 설치, 노후수도관 교체, 영산강 IV 지구 대단위 용수공급사업 조기 완료
 - (한파) 한파쉼터(5,869개소) 운영, 재난도우미(14천명) 활용 취약계층 전담 보호
- 현장 중심 '취약지구 책임관리'를 통한 인명보호 및 시설피해 최소화
 - 도, 시군, 119, 한전·KT 등 교차 확인,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(87지구) 추진

■ 「소방력」 보강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

- 각종 재난·재해에 신속한 현장대응 태세 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
 - 화재 위험시설(14,727개소) 관리,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환경개선(17개소)
 - 섬지역 다목적 중형헬기 도입,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(3,500가구)
- 분산된 소방자원 통합 관리와 도내 전역 1시간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장흥군 신축이전(20년) 및 소방 인프라 확충
 - 완도소방서 신설, 소방인력 총원(461명), 노후장비 교체(차량 42대, 장비 14,289점)

2 「쾌적」하고 「건강」한 생활환경 조성

■ 미세먼지 걱정 없는 「깨끗한 공기 질」 관리

-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미세먼지 저감대책** 추진
 - 대기질 측정망 확대(41개소), 공공차량 2부제, 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,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(277천매), ECO숲 마켓 조성(35개소) 등
-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**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**
 - 전기자동차(1,267대), 전기이륜차(200대), 천연가스자동차(85대),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(141대), 노후경유차 조기폐차(4,865대), LPG화물차 신차구입(60대)

■ 「먹는 물」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

-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노후수도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증설 등으로 **안정적인 물 공급 및 공공하수도 체계** 구축
 - 상수도시설 확충(145개소), 노후 상수도관 정비(12개소), 공공하수처리장(9개소), 농어촌 마을하수도(80개소), 하수관로 정비(38개소)
- 강·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통해 **3대강(영산강·섬진강·탐진강)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** 지속 추진
 - 폐수·분뇨처리시설 확충(136개소),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(3개소), 생태하천 복원(12개 하천), 하천 정화사업(17개 시·군), 하천 환경지킴이(20명)

■ 「폐기물」의 안정적 처리 및 「환경오염원」 관리 강화

- 소각·매립 등 **생활폐기물 처리 시설**을 확충하고, 자율 정화활동(매주 도민 대청소의 날 운영)과 유해 폐기물 적기 수거·처리 지원
 - 매립시설 설치·정비(6개소), 재활용센터 조성(3개소), 분리수거시설 설치(23개소)
 - 영농폐기물 처리(폐비닐 32천톤 등),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(3,640동)
-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으로 '**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**'를 강화하고, '**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**' 추진

3

「자연생태계」 보전과 「기후변화」 대응

■ 우수한 「자연생태자원」의 체계적 관리

- 갯벌, 도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·관리 강화
 - 무안·신안 갯벌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(199km²),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(7.0km²), 도립공원 시설·운영비 지원(7개소)
-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지질공원,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생태자원으로 활용가치 제고
 -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정(전남 550km²), 통합본부 설치·운영('19.3월)
 - 생물권보전지역 지정(순천권 전역, 938km²)

■ 「생물의 다양성」 증진과 「생태관광」 활성화

- 다양한 생물종 보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고, 멸종위기 식물 서식환경 연구·증식사업 추진
 -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: 3개 시·군(순천, 해남, 진도), 1,140ha
- 자연친화형 생태탐방로 및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가족단위 휴식 공간 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
 - 생태탐방로 2개소, 생태탐방로·데크 등(8km), 생태놀이터 1개소(3천 m²)

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「온실가스 감축」 적극 추진

- '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'에 따라 가정, 상업, 수송, 공공기관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273천톤 감축
 -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(25→27%), 저탄소실천 우수아파트 선정(9개소)
 - 그린리더 양성(1,600명),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(2,640개소)
- '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)' 여수 유치 추진
 - 영호남 지자체·민간단체 참여 T/F팀 구성·운영,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, 정부의 국가계획 확정 및 여수 유치 건의

7

상생과 소통으로 도민 제일주의 도정 실현

국내·외 교류협력 확대와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, 도민과 소통하는
도민제일주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❖ 국내·외 교류 협력 확대..... 69
- ❖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 제일주의 실천..... 70
- ❖ 밝고 투명한 도정 운영..... 71
- ❖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인재육성 강화 72



1 국내·외 「교류 협력」 확대

■ 국제 「교류 협력」 다변화 및 내실화

- '신북방·신남방정책'과 연계, 유라시아·아세안 지역 외교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
 - 러시아 수도권 지자체 교류, 극동 사하공화국과 우호협약 체결('19.8월)
 - 인도 웨스트벵갈 우호교류협약('19.2월),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상담회 개최
- 중국·일본 등 자매·우호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및 내실화
 - 전남-저장성 한중포럼 개최, 장시성·산시성·동북 3성과 고위급 상호교류
 - 일본 사가현·고치현과 고위급 회담, 자매결연(사가현), 투자유치·민간교류 확대
- '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' 차질 없이 개최(10.22~24, 여수세계박람회장)

■ 지역 간 「상생협력」 본격 추진

- '부산·경남'과의 협력 강화로 남해안권 광역경제시대 주도
 - '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' 운영(연 2회) 및 공동협력과제 본격 추진
 -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축으로서 '남해안 광역경제벨트' 구축에 공동 협력
- '광주'와의 상생협력으로 공동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
 - '광주·전남 상생발전위원회' 개최로 합의된 중요 현안 실현 노력
 - '현안간담회' 수시 개최로 협력과제(24개) 발전방안 모색 및 신규 과제 발굴
- '호남권'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(11개 사업) 지속 협력

■ 한반도 평화시대, 「남북 교류협력」사업 활성화

-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, '전남평화재단' 설립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틀 안에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 추진
 - (단기) 국제수목비엔날레 남북 공동작품 제작·전시, 남북평화스포츠 교류
 - (장기) 농업 및 수산업 기술 교류, 희귀광물자원, 산림,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

2 도민과 소통하는 「도민 제일주의」 실천

■ 「현장 중심」의 혁신도정 운영

- 시·군을 방문해 도민의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'도민과의 대화' 운영('19.2~3월)
-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'현장간담회', '민박간담회' 수시 개최
- 디지털 기반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'도정 참여기회' 확대
 -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·운영('19.4월),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등
-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·감사·홍보 등 도민 모니터링 강화
 - 도민평가단(100명), 도민감사관(197명), 명예기자(120명) 운영

■ 도정의 동반자인 「도의회」와 소통·협력 강화

- 도의회와 소통을 확대해 도정 운영 협력체계 강화
 - 도지사-의장단·상임위원장 정례 회동(분기 1회), 상임위원-실·국장(수시)
- 도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고,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·보완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

■ 도정 「홍보강화」로 도민 공감 확대

- 다양한 SNS를 활용한 도민 친화적 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강화하고, 도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
 - SNS(3,230건),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홍보 확대, SNS서포터즈단 운영(70명)
- 언론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지원 강화
 - 중요사안 브리핑·기자간담회 정례회, 도정주요사업 현장 취재 적극 지원
- 해외홍보 확대로 전남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제고
 - 해외 방송매체(KBS월드, 아리랑 TV)를 활용한 전남 홍보 CF 방영, 글로벌 SNS 서포터즈단 운영, 중화권 타깃 온라인 및 외신 언론사 활용 홍보

3 「밝고 투명한」 도정 운영

■ 「투명한 공직문화」 정착에 도정 집중

- '청렴전남' 실현과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해 도-시군, 민관 공동 협력
 - 청렴도 향상대책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, 부패방지시책 컨설팅 실시, 우수시책 공유
 - 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(22개 기관·단체), 빛가람 청렴문화제 공동 개최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, 전남 청렴활동 리더 운영(50명)
- 정부혁신 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하고, 도민이 주도하여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'사회혁신 공모사업' 추진

■ 도민을 제일로 모시는 「행정서비스」 강화

- 도민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화로 도민 만족도 제고
 - 민원상담 사전예약제, 자치법규 정비로 민원서류 최소화,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및 강화,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내실화
- 도민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행정 기반 확대
 - '19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추진, 인권교육 확대, 인권 옴부즈맨 운영(7명)
- 행정 쟁송사건의 신속·공정한 해결로 도민 권리를 보호하고,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
 - 행정심판(월 1회), 찾아가는 행정심판(연 2회), 현장중심 규제개선 분과 운영(4개)

■ 「지방재정」 건전 운영 및 공정·신속한 회계 처리

- '주민참여예산제'를 활성화해 지방 재정운영에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, '예산바로쓰기 감시단' 운영으로 예산낭비 사전 예방
- 회계집행의 전 과정을 공개해 회계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
 - 모든 회계처리 과정 도 누리집에 공개, 대가 청구 시 1~2일 내 신속 지급, 견실시공 고려 적정 심사제도 정착, 도내업체 보호·육성을 위한 계약 운영

4 도민의 삶을 바꾸는 「인재육성」 강화

■ 「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」 본격 시행

- 각 분야의 혁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'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계획' 수립('19.4월)
 - 전남형 인재상 정립,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, 전남 특화산업 및 신성장산업 맞춤형 인재육성, 사회 각 분야 선도형 인재육성, 글로벌 인재육성 등
- '인재육성기금'을 확대 조성(521→1,000억 원)해 우수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기반 마련
 - 산업역군의 직업능력을 강화해 '산업 현장별 혁신리더'를 육성하고, 청소년 글로벌 감각 배양을 위한 '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' 운영
 - 도민의 지성·지혜·가치관을 향상하는 '내 삶을 바꾸는 전남인 아카데미' 개설

■ 머물고 싶은 「교육여건」 조성

-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중소기업 '청년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' 지원
 - 우선 100명을 8년간 지원(1인당 연 90만원)하고, '22년까지 400명으로 확대
-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('22년) 전까지 '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' 전액 지원(1인 평균 10만원)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
 - 또한, 4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'중학생 체험학습비'를 3자녀 가정까지 확대

■ 도민 맞춤형 「평생교육」 제공

- 배움의 시기를 놓친 저학력 어르신에게 한글 등 기초 교육을 지원하는 도민 문해교육 운영
 - 전남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, 전문교원 양성으로 양질의 교육 지원(8천명)
- 도시권과 비교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'전남형 행복학습센터' 운영
 - 학습매니저 인건비, 강사료, 교재비, 실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지원(50개소)

